

오름을 품은 신들의 고향

1만 8천여 신들의 고향인 송당 본향당과 수많은 오름들로 수놓인 곳. 한라산 동쪽으로 나 있는 금백조로와 비자림로 주변에는 오름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정취에 저절로 탄성이 나온다. 신들의 고향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품고 있다.



송당서1길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594 ~ 구좌읍 송당리 1604-2(약 0.4km)

금백조로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696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334(약 10.7km)

비자림로 | 제주시 봉개동 산78-10 ~ 구좌읍 평대리 1719-1(약 27.3km)

비자숲길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203-1 ~ 구좌읍 평대리 3159-5(약 1km)

다랑쉬로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011 ~ 구좌읍 세화리 3606(약 5.4km)

용눈이오름로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870 ~ 구좌읍 종달리 3606(약 8.2km)

송당서1길 / 금백조로 | 송당 본향당



송당 본향당

비자림로와 번영로 교차로에서 비자림 방향으로 가다보면 중산간동로를 만나는 지점에 **송당서1길**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당오름 방향으로 가면 송당리 본향당을 마주한다. 본향당이란 제주의 마을마다 신을 모시기 위해 마련한 신당을 일컫는다. 주로 마을의 여자들이 정해진 기일 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신을 찾아가 제물을 올리고 가족들의 무사안녕을 빌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당은 무척이나 신성한 곳이었다. 제주에는 과거 수백 개의 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 중에는 이미 명맥이 끊겨버린 당도 있지만 송당에서는 아직까지 마을 사람들을 보호

하는 마을 신으로 받들고 있다. 제주의 당신앙의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송당 본향당은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당곳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송당 본향당에 좌정한 신은 금백조 또는 백주또라고 불리는 여신이다. 그래서 송당 인근을 지나는 길에 **금백조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금백조 신의 내력을 풀어놓은 본풀이에 따르면 금백조는 사냥꾼인 소천국과 결혼해서 많은 자식을 낳고 살았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했다. 어느 날 소천국은 밭에서 일을 하다 배가 고프자 밭을 갈던 자신의 소를 잡아 먹어버린다. 그럼에도 허기가 가시지 않자 남의 밭에서 일하던 소까지 잡아 먹고 만다. 살림 밀천인 소를 잡아먹은 것에 화가 난 금백조는 소천국에게 그만 갈라서자고 했고, 소천국과 금백조는 따로 살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금백조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김녕리에 좌정한 신인 케네깃또이다. 용궁과 강남천자국을 떠돌다 돌아온 케네깃또에 의해서 금백조는 송당의 수호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제주에 전해오는 신화에 따르면 소천국과 금백조는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을 낳았는데, 이 자손들이 제주도 전 지역의 마을로 흩어져 당신으로 좌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송당 본향당을 제주도 각 마을 당의 조상으로 여기며 ‘불회공(태초의 뿌리)’이라고 부른다. 이곳이 신들이 고향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자림로 / 비자숲길 | 드라이브의 명소 비자림로

비자림로와 비자숲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림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비자림로는 경치 좋은 제주에서도 손에 꼽히는 드라이브 명소이다. 516로에서 시작된 길은 동쪽 방면 평대리에 이르러서야 끝이 난다. 총 27km에 걸쳐 이어지는 길은 곳곳에 관광객들이 즐길 만한 명소들이 있다. 신령스런 숲이라는 뜻의 사려니숲길, 청정 제주물을 생산하는 삼다수 마을, 영화 『연풍연가』로 유명해진 산굼부리와 교래 지역의 목장들, 오름과 비자림까지 수려한 경관을 가진 제주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그 중 비자림로에서 만나는 울창한 삼나무숲은 2002년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제1회 아름다운 도로’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비자림로의 끝에 이르면 비자숲길을 만난다. 이 비자숲길을 따라가면 수천 그루의 비자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비자림이 있다. 300년 이상된 나무도 수백 그루에 이를 정도로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비자나무숲이다. 비자나무의 열매는 옛날부터 장수를 위한 비약이라고 여겨져 한방에서도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었다. 열매 속의 씨앗은 구충제로 사용해서 동의보감에 “하루 일곱 개씩 일주일을 먹으면 촌충이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비자는 왕에게 바치는 주요 진상품 중에 하나였다고 전한다. 이 밖에도 고려시대 때부터 자란 비자나무를 21세기의 시작인 2000년 1월 1일 새로 맞이한 천 년을 상징하는 ‘새천년 비자나무’로 정해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이라는 가치를 전하고 있다.



비자림로

다랑쉬로 / 용눈이오름로 | 초원 속 오름의 정취

금백조로와 비자림로 주변을 지나다보면 곳곳에 솟아있는 오름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 중에 다랑쉬오름과 용눈이오름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오름들이다. 비자림로에서 중산간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랑쉬로를 만나게 된다. 다랑쉬로는 인근에 있는 다랑쉬오름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월랑봉(月郎峰)이라고도 부르는데 다랑쉬라는 이름을 한자로 바꿔 표기한 것이다. 다랑쉬오름은 제주에서는 비교적 큰 오름에 속한다. 정상에



다랑쉬오름

오르면 나무가 많지 않아 주변의 전망을 감상하기 좋다. 옛날 오름 주변에는 다랑쉬마을이 있었지만 4·3사건 때 사라지고 말았다. 다랑쉬오름에 있는 동굴에서는 당시 화마를 피해 숨어있다 끝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다.

다랑쉬오름로와 중산간동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용** **눈이오름**로가 시작된다. **용눈이오름**로는 인근에 있는 용눈이오름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다랑쉬오름 남쪽에 있는 이 오름의 모양이 마치 용이 누워 있는 것과 같다고 해서 용눈이오름이라고 불렀다. 이곳의 부드러운 능선은 자연을 담으려는 사진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오름들의 천국인 중산간 동북쪽의 도로를 달리다보면 여기에 미처 다 소개되지 못한 오름들이 솟아 있다. 그곳에 가면 풍요로운 여신의 품을 닮은 제주의 오름들을 만날 수 있다.